



손진호

홈 > 칼럼 > 손진호

[손진호 교수의 명가의 와인] 뷔 마넨(Viu Manent)

손진호 기자 sonwine@daum.net | 등록 2019.05.16 09:20:47

[글 | 사진 | 동영상 | 맵 | + -]



HOTEL & RESTAURANT
GLOBAL HOSPITALITY MAGAZINE

계절의 여왕 5월~여 최고의 계절일까? 장미를 비롯한 모든 화사한 꽃들이 만발하고, 범드스런 4월 날씨보다는 안정되고, 더운 여름으로 진입하는 6월로 가기 전의 5월이 기운도 가장 최적이라 그런 양관을 써워줬을까?

와인으로 본다면, 가장 안정되고 무난한 칠레 와인 격이다. 최근 칠레 와인 품질 상승 속도가 놀랍다. 레드 와인의 풍성한 과일 향과 화이트 와인의 화사한 꽃향기, 은화한 알코올과 매끄러운 바디와 탄닌~!

그렇다. 5월에는 칠레로 가자!

대서양을 건너 칠레, 돈 미겔 뷔

1935년 스페인 카탈루냐(Cataluña) 지방 출신의 이민자 미겔 뷔 가르시아(Miguel Viu-García)와 두 아들 아구스틴(Augustín)과 미겔 뷔 마넨(Miguel Viu Manent)은 청운의 꿈을 품고 대서양을 건넜다. 그들은 칠레 수도 산티아고 근방에 양조장 보데가스 뷔(Bodega Viu)을 설립했다. 그들은 포도를 구입해 양조해서 국내 시장에 자신들의 브랜드 'Vinos Viu'로 병입 판매했다. 이비자와 형과 함께 일하던 미겔 뷔 마넨은 1954년 산티아고의 한 양조장을 구입해 독립한다. 사업은 성공적이었고, 칠레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솔로건 '뷰 와인으로 건배를~!(Salud con vinos Viu~)'를 각주시켰다. 1961년에는 시인이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네루다(Pablo Neruda)도 이 와인 속에 디녀가 그의 사진이 남아있다.



HOTEL & RESTAURANT
GLOBAL HOSPITALITY MAGAZINE

1966년에 미겔 뷔 마넨은 남쪽의 클라우아 베리에 있던 오래된 농장 산 카를로스(Hacienda San Carlos de Cunaco)를 구입하면서 자신들만의 원천한 와인을 생산하겠다는 오랜 꿈을 이루었다. 이 농장은 150ha의 포도밭과 양조장, 저택으로 구성됐는데, 벌에는 유럽의 퀄리티와 사태 이전에 프랑스로부터 가져온 우수한 포도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다. 황재였다. 이 포도원의 100년 와인 양조의 역사와 뷔 일가의 와인 마케팅 능력이 결합하자, 1980년대 말부터 국제시장에서 뷔마넨 와인은 그 품질을 인정받게 됐다.

1970년부터 회사는 와인 산업의 다양한 분야를 통합한 완전체를 꾸며 성장을 거듭했다. 산티아고와 밸파리아소(Valparaíso)사이에 32개의 와인 술 체인을 형성했으며, 와인 운송 회사도 설립했다. 이제 뷔 회사는 와인 생산과 판매, 마케팅을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양조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미겔 뷔는 칠레 산업 대표단을 꾸려 멘도사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산업 시찰을 가서 최신 양조 병기 기술을 도입했다. 그리고 1977년 미겔은 스페인을 방문, 스페인의 가장 유망한 와인 회사인 미겔 데 토레스(Miguel Torres)의 와인과 브랜드를 칠레로 수입 배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뷔 회사의 영업망과 신뢰도를 인정받은 결과다. 1980년대 들어와서는 와인의 품질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뷔 회사는 처음으로 농학과 양자학자를 초빙해 포도 재배와 양조 컨설팅을 밟기 시작했다. 로베르토 빠사로(Roberto Pizarro), 아우렐리오 몬테스(Aurelio Montes) 등 경쟁한 전문가들이 뷔 회사의 와인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했다.

새 술은 새 부다에, 뷔 마넨의 혁신

1990년 돈 미겔은 자녀들을 회사 일에 참여시켰다. 장남 호세 미겔 뷔 보티니(José Miguel Viu-Bottini)와 딸 로레나(Lorena)와 그녀의 남편 안헬 구르투바예(Angel Gurtubay)가 함께 회사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젊은 피가 충원되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쳐났다. 2대 째의 열정이 3세들의 혁신이 물бо이는 새 시대가 열렸다.

뷔 마넨은 1993년 칠레의 첫 말벡 품종 와인을 생산해 레이블에 품종 명을 명시하고 마케팅을 벌인 최초의 칠레 회사다. 이를 시금석으로 지속적으로 최고 품질의 말벡 와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물인 '비보(ViBo)' 와인에 대해서는 뒷장의 시음후기에서 언급하겠다.

1995년 클라우아 베리가 DO 등급을 얻게 됐고, 특히 레드 와인 생산의 명지로 세계적으로 알려 지게 되자, 미래 감각이 충만했던 뷔 마넨 회사는 1999년 클라우아 베리의 페랄리오(Peralillo) 구역에 있는 올 올리바르(El Olivar) 농장을 구입했다. 회사의 두 번째 농장이다. 325ha의 넓은 포도밭은 경사지의 척박한 토양에 배수가 잘 돼, 매우 독특한 개성을 담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2000년에는 그동안 회사를 키워온 2대 돈 미겔이 서거, 장남인 호세 미겔이 공동 소유주로서 대표를 맡았다. 회사는 지금까지 이어 오면서 가족 소유 아래 있다. 회사는 슬픔을 딛고, 2001년에 돈 미겔 뷔 마넨을 추모하며 현정 와인인 아이콘 'ViU T'을 출시했다.

아이콘 ViU&ViBo에서 Incidente를 거쳐 Secreto까지

2009년에는 이주 새로운 ViBo 시리즈 와인이 출시됐다. 첫 비보 와인은 말벡 와인되었는데, 그 탄생 스토리도 뒷장의 시음기에서 다룬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비보 와인이 추가된다. 두 번째는 비네도 센테나리오(Vinedo Centenario)다. 산 카를로스 농장의 100년 이상 된 고목으로부터 생긴 뷔 클라우아 베리에서의 뷔마넨의 역사와 기원, 전통을 말해주고 있다. 블렌딩 품종은 전통적인 까베르네 소비뇽과 말벡, 빠미 베르도를 사용한다. 이 와인을 통해 말벡이 다른 품종과 매우 다른 특징을 갖도록 한다. 세 번째 비보 라인업은 빠미 베렌또(Punta del Viento)이다. 남미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지중해 스타일 와인으로 그르나슈, 무르베드르, 시라를 블렌딩했다. 와인 이름은 포도가 심어져 있는 언덕의 이름에서 따왔다. 태평양 쪽으로 내려간 북동향 언덕의 사면에 화산토와 점토로 구성된 멋진 포도밭 옆 올리바르가 있는 곳이다.

2010년에는 뷔 마넨 설립 75주년을 기념해, 첫 까르메네르 아이콘 와인 '엘 인시덴떼(El Incidente)'를 출시했다. 와인 이름 'El Incidente'는 '사고라는 뜻인데, 그 유래가 흥미롭다. 3대 경영자인 호세 미겔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와이너리 관광 차 시험 도입한 열기구(몽골파이)에 탔다. 기구는 클라우아 베리의 포도밭 위를 순항했는데, 갑자기 고장이 일으켜 옆 동네인 산티아고 시의 시장 근처에 비상 착륙하게 됐고, 지켜보는 이들은 마음을 춤췄다고 한다. 그 기억과 추억을 레이블에 그대로 담았다. 열기구가 대구로 뒤집히는 이미지가 '미안하지만' 귀엽다. 위 두 칠레의 '비보' 라인과 인시덴떼 와인들은 안타깝게도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

칠레 말벡 와인의 선두 주자, 뷔 마넨

뷔 마넨 회사는 칠레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말벡 와인 생산자로 유명하다. 말벡 품종은 프랑스 보르도와 남서부의 까르메네르(Cahors)를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다. 이 품종은 19세기에 유럽인들이 대거 남미로 이주하면서 도입됐다. 프랑스 현지에서는 서늘하고 비가 오는 기후로 인해 확대되거나 있다가 지중해성 기후의 남미로 재배 지역을 옮기면서 매우 반성하게 됐다. 특히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말벡 품종의 적정이 병충해도 거의 없고 포도가 잘 익으면서 짙은 색상에 과일 풍미가 가득한 와인을 생산하게 됐다.

말벡은 아르헨티나의 국가 대표 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뷔 마넨은 30년 전부터 클라우아 베리 지역에서 말벡 와인을 생산해 왔다. 뷔 마넨 양조장은 특히 칠레 최초로 말벡 품종을 상품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와인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 말벡 품종을 가장 잘 만드는 양조장상도 수상했다. 1993년 수령이 백년 기끼이 된 말벡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로 100% 말벡 품종 와인을 처음 만들었다. 2010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국제 말벡 품질 대회(International Malbec Competition)에서 4개의 금상을 받았으며, 'Viu Manent Single Vineyard Malbec'으로 '남반구 최고 말벡 와인(Best Malbec Wine of the Southern Hemisphere)'상을 수상했다. 뷔 마넨은 모두 8종의 말벡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칠레의 모범적인 가족 회사 뷔 마넨 사는 칠레의 떠오르는 명성인 클라우아 베리의 대표 양조장 중 하나다. 단순히 와인 생산 분만 아니라 함께 하는 즐거운 삶이라는 가치관 아래 조성된 아름다운 뷔 마넨 와이너리는 칠레 와인 관광의 선구자로서 클라우아 베리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 수를 기록한 와이너리로도 선정됐다.

보르도의 무등 롯쉴드처럼 예술적 레이블을 구가하며, 섬세한 와인을 생산하는 인상 깊은 와이너리 뷔 마넨 다음 방문 때에는 꼭 열기구도 타보고야 말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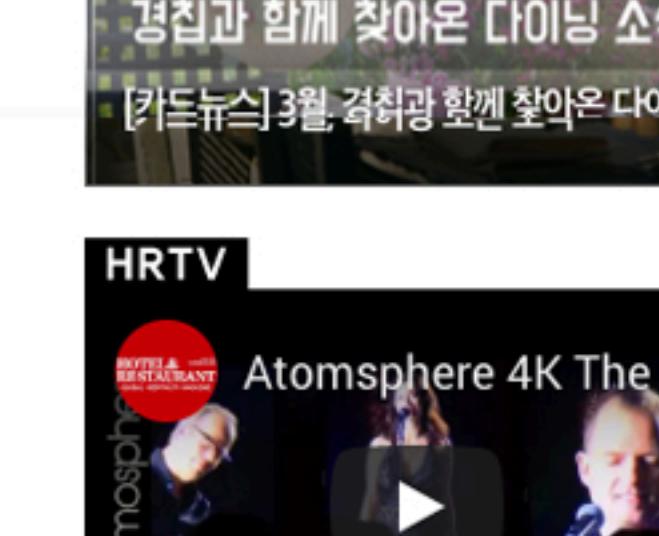
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다면?

뉴스레터 신청하기

e-Book



카드뉴스



7 / 10

HRTV



호텔앤레스토랑 HOT 클릭

- 1 [Tourism Topic]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다: 도시재...
2 [Tourism Topic]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다: 도시재...
3 [Feature] 2019 호텔 웨딩 트렌드 -①
- 4 [Column, 노혜영 기자의 세상보기] 서비스의 놀...
5 [신문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종합소득세 신고 및...
6 [Hotel List Up] 나만 알고 싶은 부산 부티크 호텔...
7 [이효상의 Hotel Architectural Design Guide] 간...

실시간뉴스

다보기>

호텔 예약 트렌드, 지금은 '공동족'이 든다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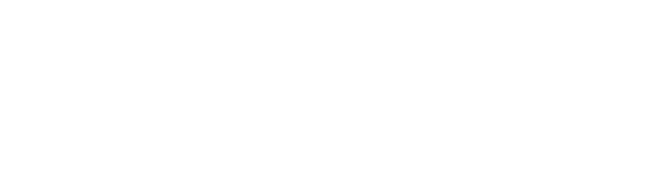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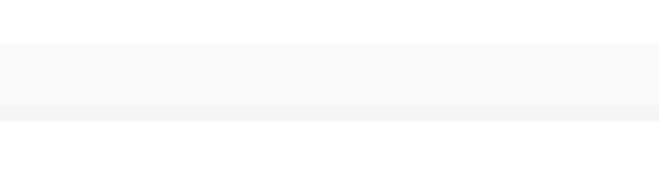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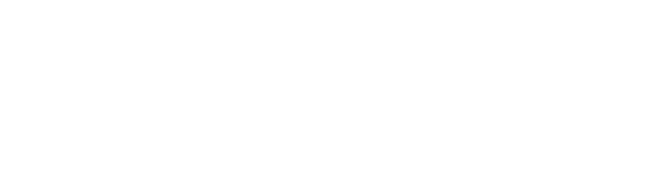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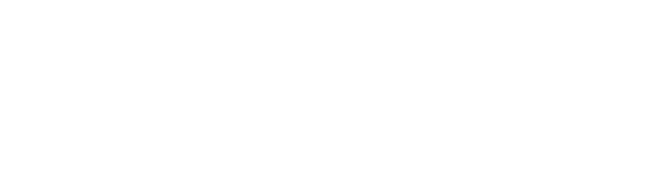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

[Hotel Issue] 호텔 속 침대, 호텔의 가장 ...